『음악논단』 제43집
2020년 4월, 125-163쪽
ⓒ 2020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https://doi.org/10.36944/JSPM.2020.04.43.125

해병대 비공식 군가의 카니발적 특성

김 세 훈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Ⅰ. 서론

마을 어귀마다 보이는 컨테이너 가건물이 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해병대 전우회'라 적혀 있는 간판이 달려있다. 해병대를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조직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곳곳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 축제의 교통 및 안전 통제는 물론 방범 활동, 그리고 재난 구조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선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그들은 3가지 복장과 하나의 목소리로 상징된다. '팔각모', '빨간 명찰', '세무워커',[1] 그리고 ≪빠따가≫가 그것이다.

≪빠따가≫는 일종의 군가(軍歌)이다. '일종의'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는 그것이 비공식적인 군가이기 때문이다. 그 기원이 불분명하고, 공식적 문건에서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식행사에서도 가창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병전우회의 모임에서 ≪빠따가≫는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애창곡이다. ≪빠따가≫의 합창은 그들의 결속을 다시금 다져주는 매개체이자 구호와도 같다.

군가는 군 장병의 단결심을 배양하고 전의(戰意)와 사기를 고취시켜 임무의 달성에 이르게 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2] 이

1) 이 3가지는 육군, 해군, 공군과 차별되는 해병대만의 독특한 복장으로, 팔각형의 모자와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의 명찰,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의 전투화가 그것이다.

를 위해 군가의 가사에는 군(軍)의 이념과 사명을 바탕으로 목표 완수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으며, 군 수뇌부는 장병 군가 가창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군가가 만들어지고 불려오고 있는데 ≪진짜 사나이≫[3]와 같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군가와 달리, ≪빠따가≫처럼 장병들 속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전되어온 비공식 군가, 이른바 '사가(私歌)'[4]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군가의 가사 속에서는 과장된 표현, 은어, 비속어 등 기존의 언어 규범과 질서를 뒤엎는 거친 표현양식과 기존의 노래에 가사만 바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형식 등 독특한 표현양식이 나타난다.

러시아의 문학사상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 1895-1975)의 '카니발(carnival) 이론'은 이 같은 문화의 독특한 표현양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카니발'은 부활절 이전 40일의 사순절(四旬節)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금욕과 절제의 생활을 하기 직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중세시대 유행했던 축제를 말한다.[5] 바흐친은 카니발을 분석하여 민중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설명하였는데 카니발 속에서는 모든 공식적 권위와 권력의 위계가 뒤집어지며 민중들은 욕설, 그로테스크한 표현, 패러디 등을 통해 지배계급과 그 문화를 야유하고 조롱한다고 하였다.[6] 이 같

2) 김세훈, "군 장병 군가가창 활성화 연구," 『정신전력연구』 53 (2018), 246-247.
3)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으로 시작되는 국민 애창 군가, 유호 작사, 이흥렬 작곡, 1962년 발표.
4) '군가(軍歌)'의 대비개념으로 '사적 군가(私的 軍歌)'를 줄인 표현. 된소리화되어 '싸가'라고도 불린다.
5) 일견 종교적 경건성과 그 취지에서 벗어나는 무분별하고 자제력 없는 방종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군 입대, 입학 등 경건과 엄숙함으로의 진입 직전 폭음과 과식 등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된다. 심지어 사순절은 물론 기독교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카니발적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수가 행한 첫 번째 이적은 혼인 잔칫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다.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끽하길 원했던 것이다(요한복음 2장 1-10절). 예수 또한 축제 속에서 먹고 마셨다(누가복음 7장 33-34절). 예수의 곁에는 창녀, 이방인, 세리, 과부, 어부, 병자, 거지와 같은 가장 낮고 천한 민중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 당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의 허위의식을 통렬히 비판했고, 기존의 율법을 부정했다. 욕설과 비속어를 퍼부으며 말이다. 민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카니발적 행위를 통해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했다.
6) Mikhail Bakhtin, 『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공역 (서울: 길, 2006), 477-481.

은 전도, 전복적 문화의 양상은 제도와 권력으로부터 억압된 삶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민중들은 삶에 대한 생성의 에너지를 얻는다.[7] 즉 군대라는 조직의 하위계급으로 대표되는 병사들 사이에서 자생된 비공식 군가는 그들이 겪어온 힘든 훈련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통제되어온 욕구에 대한 하나의 해방구이자 배설구로써 작용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해・공군 등 다양한 군 조직 중 유독 강한 훈련 강도와 엄격한 군기 수준을 자랑하는 해병대가 비공식 군가 보유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영토를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8]을 수행하기 위해 군 장병은 높은 수준의 전술, 전기 연마를 통한 최고 수준의 전투력의 보유가 요구된다. 그러나 욕구의 억압과 통제는 사기(士氣)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연히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욕구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수단은 자연스럽게 발생 되며 비공식 군가는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통한 비공식 군가의 분석은 군 병영 생활 속 억압된 욕망의 발현방식과 장병들만의 하위문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비공식 군가, 군가의 은밀하고 독특한 비공식 문화

군가는 군인들의 애국심과 사기의 고취, 전의 고양, 단결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9]로 훈련, 행군, 구보(驅步), 행진 등 단체 활동 중 주로 부른다. 군가는 단체가 함께 부름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안정감과 보호감을 느끼는 '사회통합의 기능'과, 리듬과 신체활동의 동화를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체활동 촉진의 기능', 그리고 반복적 가창을 통해 가사에 담긴 가치관과 의

7) 오민석, 『현대문학이론의 길잡이』 (서울: 시인동네, 2018), 117-119.
8) 국방부, 법률 제1363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17.
9) 박재권, "육군 사단가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 『한일군사문화연구』 9 (2010), 166.

미를 내면화하는 '사회규범 내면화의 기능' 등의 효용을 가지며 무형전투력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0] 이러한 이유로 군 지휘부는 각 군 정훈병과 주도의 군가 공모, 군가 합창대회, 군가 음반 제작 등 군가 가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식 군가와 달리 장병들 속에서 자생되어 비공식적으로 불리는 군가가 발견된다. 비공식 군가는 통상 '사가(私歌)'라고 불리는데, 사복(私服), 사재품(私財稟) 등과 같이 군대의 공식적인 것에 대비되는 '사(私)'자에 '군가'가 결합된 단어로, 공식적으로 제정된 군가는 아니지만 군가의 용도와 동일하게 장병들이 가창하며 병영 내에서 활용되는 것을 지칭한다. 군대의 하위계층인 병사들 사이에서 자생되고 구전되어 온 만큼 공식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전역자의 회고,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많은 비공식 군가 중에서 특히 해병대를 소재로 한 비공식 군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공식 군가는 그 형식면에서 기존의 노래에 가사를 바꾼 '노가바'[11]형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사를 바꾸는 형식은 비단 군대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현장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가바가 활용되었고,[12] 2016년 촛불집회에서도 민중들은 노가바를 통해 저항의 진지함을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켰다.[13] 노가바는 일제 치하의 식민지시대에도 이미 성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14] 서양음악이 국내에 유입되던 초창기의 '창가' 역시 원곡의 멜로디에 가사를 번역하기보다는 필요에 맞게 가사를 바꾸어 부른 노가바의 형태가 대다수였음을 알 수

10) 김세훈, "군 장병 군가가창 활성화 연구," 250-252.

11)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의 줄임말.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민중의 정서를 표현하고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노동현장과 학교 등지에서 집단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작자와 그 시기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정경은, 『한국 현대 민중가요사』 (서울: 서정시학, 2008), 229-230.

12) 천유철, "5·18 광주민중항쟁 "현장"의 문화적 실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55 (2014), 466.

13) 곽재현,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레스크 고찰 – 2016 촛불집회 현상 -," 『관광학연구』 41/7 (2017), 58.

14) 장성규, "식민지 시대 소설과 비문해자들의 문학사," 『현대소설연구』 56 (2014), 510.

있다.[15] 서구사회에서는 성직자와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교회의 찬송가를 대중도 향유하기 위해 세속가요의 선율에 찬송의 가사만 붙인 '콘트라팍툼'(contrafactum)이라는 형식이 이미 16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이 또한 노가바의 또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16] 한편,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화재가 된 초등학생들의 노가바인 ≪정치를 했다≫[17]까지 노가바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노가바는 민중의 문화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기에 비공식 군가에서도 노가바 기법이 활용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해병대는 육・해・공군 등 타군과 구별된 강한 군, 강도 높은 훈련, 엄정한 군기를 자랑하고 자부심이 매우 강한 조직이다. 그러나 '곤조'[18]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해병대의 거친 근성은 해병대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생산했다. 강한 훈련만큼이나 장병의 피로도는 높았고, 엄정함을 넘어선 과도한 군기와 병영 부조리로 인해 장병들의 욕구불만과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육・해・공군 등 타군에 비해 열악한 보급과 대우에 대한 설움이 해병대원의 곤조를 부추겼고 술집에서의 고성방가와 시비, 타군과의 주먹다짐은 곤조의 발산이자 타군과 차별됨의 표출이었다.[19]

이러한 차별적인 해병대만의 문화양식은 복장, 용어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며, 특히 팔각모와 빨간 명찰, 그리고 군가 문화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20]

---

15)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연구," 『이화음악논집』 23/1 (2019), 153-154.

16) Donald J. Grout,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서양음악사』 (*A History of Western Music*), 민은기・오지희・이희경 외 공역 (서울: 이앤비 플러스, 2009), 240-241.

17)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노래 ≪사랑을 했다≫를 개사한 노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로 시작되는 가사 대신 "정치를 했다 순실이 만나 지우질 못할 역사를 썼다~"로 개사한 노가바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중의 소리, "[L2의 플레이리스트] '사랑을 했다'는 왜 '초딩'들의 '국민가요'가 됐을까," http://www.vop.co.kr/A00001309587.html [2020년 1월 3일 접속].

18) '근성'(根性)의 일본어식 발음으로 고집이 세고 고약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2020년 1월 7일 접속].

19) 이경수, 『사나이들은 해병대로 간다』 (서울: 조선일보사, 2004), 56.

20) 민진, 김민석, "상징적 접근에 의한 한국 군대 조직문화에 대한 분석," 『한국조직

해병대의 공식 군가에서는 '해병', 또는 '해병대'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며, 육・해・공군 등 타군에 비해 사용빈도 측면에서도 해병대 군가가 압도적이다. 또한 '팔각모', '빨간 명찰' 등 해병을 상징하는 단어를 통해 해병대만의 구별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21] 더욱이 공식 군가가 담을 수 없는 해병대만의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비공식 군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특화된 차별성을 보여준다.[22] 그러나 성행위의 묘사를 비롯해 구타와 힘든 생활에 대한 신세 한탄 등 거친 표현의 가사는 공식 군가가 추구하는 국가수호, 전승의 투지, 전우애 등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며, 군의 사명과 임무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해병대원의 '곤조' 개념과 연결하여 해석될 수 있는데, 통제와 억압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 마음속의 욕구를 노래 가사로 발산함을 통해 승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비공식 군가는 공식적인 군의 행사에서는 불리지 않으며, 고위 계급이 등장하지 않는 말단의 훈련장 등지에서만 음성적으로 불리어 왔다. 이처럼 해병대 장병의 억압된 욕망이 비공식 군가라는 전복적이며 과장된 양식으로 발현된 현상은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과 맞닿아 있다.

2.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

미하일 바흐친은 러시아의 사상가이자 문학 이론가로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주의 언어학의 토대 위에서 기존 프로이트주의와 러시아 형식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대화적 관계'(dialogic reaction), '다성성'(polyphony), '카니발'(carnival) 등의 개념을 통해 문학에 대한 독자적 사상의 체계를 구축하였다.[23] 특히 그의 박사 논문인 "라블레와 그의 세계"(Rabelais and His World)를 통해 민

학회보』 9/3 (2012), 52.

21) 박순제, 이승철, "한국의 사회변동과 해군・해병대 군가의 특색 연구," 『해양연구논총』 47 (2016), 142.

22) "다소 저속한 표현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근성가(일명 곤조가)등 예전부터 구전되어 온 작사자 미상의 노래들도 해병대 병영문화의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병대의 공식 문헌에도 비공식 군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문화와 가치』 (서울: 군인공제회 제1문화 사업소, 2000), 228.

23) 이노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한 분석적 비평," 『영어어문교육』 16/4 (2010), 224-225.

중들의 축제인 '카니발'(carnival)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이론화하였다. 카니발은 그리스도교의 '사순절'(Lent)에서 비롯된 축제 문화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40일간을 술과 고기 등을 금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 미리 술과 고기를 진탕 먹고 즐기자는 데서 시작한 풍습이 점차 확대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24]

바흐친이 설명하는 카니발에서 민중들은 욕설과 음담패설, 폭식과 폭음, 그리고 혐오적 표현이 담긴 축제, 가면극, 가장행렬, 서커스 등의 공연행위를 통해 공식문화와 위계를 뒤집고 조롱하며 권력의 위엄과 권위를 부정하였다.[25] 특히 성기・오물・살생 등 기괴하고 혐오스러우며 일상에서 금기시되는 것들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그로테스크'양식은, 고상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격하시킴으로써 가장 낮고 육체적인 것들이 가진 쾌락과 환희를 나타내고, 역동적인 생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26] 또한 카니발에는 패러디라는 독특한 문화양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작이 가지는 표현양식과 구성은 모방하되 텍스트의 전도와 차용을 통해 권위의 진지함과 위엄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이다.[27] 이 같이 전복적이면서 익살과 웃음이 가득한 문화양식은 사회 지배층의 권위주의적인 규제와 억압에 대한 민중들의 분출구이자 배설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지배층 또한 이를 묵인하고 인정하여 민중들의 억눌린 욕망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카니발 특유의 문화형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28] 만약 민중을 포함한 당시 피지배 계층과 소외 계층의 불만과 갈등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누적되었다면, 폭동이나 혁명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체제 자체가 전복될 위험성에 직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카니발은 체제와 질서수호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며 당시 지배계층이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24) 오민석, 『현대 문학 이론의 길잡이』, 117.
25)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아』 (서울: 역락, 2011), 86.
26) 여홍상, 『바흐친과 문화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102-103.
27) 김영순, 이종하, "대중문화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의 비판적 기술," 『한국언어문화』 27 (2005), 354.
28) 이동춘, "바흐친(Bakhtin), 카니발 그리고 사회적 기능," 『신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5. 신영어영문학회, 122.

는 바흐친이 말한 문화적 '구심력'과 '원심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문학적 세계에서는 공식적인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구심력'에 대항하여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심력'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였는데, 사회 지배층의 권위와 규제라는 '구심력'에 대항하여 카니발이라는 '원심력'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29]

또한, 우리는 카니발의 특징 중 하나인 '가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면은 카니발이라는 일탈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로 책임과 눈치, 그리고 도덕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자신감 있는 과감한 참여를 가능케 한다.[30] 다시 말해 가면은 '나'를 감춤으로써 축제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과장되고 전복적인 표현행위를 자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31] 일례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탈춤'은 '탈'이라는 가면을 활용한 전형적인 카니발 현상임을 알 수 있다.[32]

이러한 카니발은 다양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권력을 조롱하고, 웃음을 나누는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발현된다.[33] 광장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란 시간과 공간의 결합 속에서 의미와 가치가 발생되는데, 바흐친은 이를 '크로노토프'(chronotope)라 명하고 개념화하였다.[34] 크로노토프의 개념에 따라 광장은 단지 공간적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시간적 광장'과 '공간적 광장'을 아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공연과 가장행렬, 그리고 서커스 및 음주 가무가 일어나는 거리와 시장의 공터가 카니발의 '공간적 광장'이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직전의 일정 기간이 카니발의 '시간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카니발은 시간적 광장과 공간적 광장이 교차하는 곳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민중은 이 속에서 해방을 맛볼 수 있었기에 카니발의 크로노토프는 곧 유토피아의 크로노토프라 할 수 있다.[35]

---

29) 정정호, 『전환기의 문학과 대화적 상상력』 (서울: 한신문화사, 1998), 174.
30) 박동준, 『축제와 엑스터시』 (파주: 한울, 2009), 246-250.
31)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야』, 87.
32) 신혜영, "카니발 이론으로 본 마당극," 『민속학연구』 26 (2010), 134.
33) 박승규, "광장, 카니발과 미학적 정치 공간," 『공간과 사회』 34 (2010), 66.
34)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 정치학』 (서울: 그린비, 2017), 93-94.
35) Caryl Emerson, Gary Saul Morson, *The Current in Criticism : Essays on*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이'를 추구한다고 주장한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938-2010)의 '호모 루덴스' 개념 역시 카니발을 뒷받침한다.[36] 권위와 규율에 저항하여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카니발 축제는 놀이를 추구하는 인간의 대표적이며 보편적인 양상이기 때문이다. 왁자지껄한 웃음과 무질서 속에서 서로 화합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충전하는 모습에서 놀이를 통해 갱생하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민중들 속에서는 억압에 대한 저항문화로 다양한 카니발이 나타나는데 특히 노래라는 형식에서 많은 사례가 발견된다. 이는 음악이 가지는 '감정표현의 기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음악은 정치·사회적 사안에서 집단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왔으며 특히 노래를 통해 대중의 감정이 표현되어왔기 때문이다.[37] 곽재현(2017)은 부패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축제의 형식으로 발현된 촛불집회에서 다양한 카니발적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한 대중가수는 자신의 노래를 개사하여 정권을 비판하였다.[38] 이는 3·15 의거와 1979년 부마항쟁은 물론 1980년 5.18 광주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불려진 노래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미 대중화된 노래에 단지 가사만 바뀐 것이었다.[39]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익숙하고 흥겨운 멜로디를 통한 일체감 형성은 참여를 더욱 유도하였고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연대감을 나누었다.

따라서 기존의 노래에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가바는 곧 바흐친이 카니발의

---

the Present and Future of Literary Theory (West Lafayette: Perdue University Press, 1987), 43-64; 김욱동, 『바흐친과 대화주의』 (서울: 나남, 1990), 83 재인용.

36)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 (고양: 연암서가, 2010), 51.

37) Alan P. Merriam, *The anthropology of musi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219.

38) 가수 DJ DOC는 2016년 12월 10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7차 범국민행동'에서 자신의 곡 ≪수취인 불명≫의 가사를 '역대급 삥땅, 멘붕 새뇨리땅~ 한 탕탕탕 문고리 삼인방 국민에겐 사과없이..'로 개사하여 정권을 비판하였고 큰 호응을 얻었다. 곽재현,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레스크 고찰 – 2016 촛불집회 현상 -," 58.

39) 천유철, "5.18 광주 민주항쟁 '현장'의 문화적 실천 양상," 484-485.

특징으로 말한 '패러디'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지함으로 대표되는 기성 권력에 대한 조롱과 해학을 바흐친은 '웃음을 가진 저항문화'라 하였으며, 민중들은 권력에 대한 공포를 웃음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40]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카니발적인 양상은 비공식 군가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이 유추된다. 비공식 군가는 기존의 군가가 지닌 특성을 전복하고, 단어를 해체하며 기존 권위를 조롱, 해학, 풍자하는 형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통제되고 억압된 군 생활에 대한 군 장병의 욕망이 어떠한 경로로 표출되는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군가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세훈(2018)의 "군 장병 군가 가창 활성화연구"를 비롯하여, 강진순(2017)의 "군가 활성화를 위한 장병 의식 조사 연구"와 장상윤(2008)의 "한국 육군 군가교육에 관한 연구"등이 있는데, 이는 군가의 텍스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단지 사기증진과 단결심 배양, 그리고 군인정신 고취라는 순기능적 군가의 역할만을 전제로 한 활성화 방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문학이론을 활용하여 군가 텍스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군대의 문화를 고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였고,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통한 부대가(部隊歌)[41]를 분석한 바 있다.[42] 바흐친은 구조주의에 대해 일정부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어'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구조주의의 활용과 적용을 확장시킴으로써 소쉬르의 사유를 계승・발전시킨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43] 뿐만 아니라 바흐친의 이론은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적 방법론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기에[44] 군대 문화의 분석에 유

40) 곽재현,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레스크 고찰 – 2016 촛불집회 현상 -," 50.
41) OO사단, OO사령부 등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를 대표하는 군가. 학교의 교가, 회사의 사가와 같은 역할을 하며, 국기 게양식・지휘관 이 취임식 등 공식행사에 빠짐없이 불림은 물론 훈련과 구보 시에도 가창된다.
42) 김세훈, 이영주, 이환수, "육군 부대가의 구조 언어학적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75/2 (2019), 121-138.
43) Terry Eagleton, 『문학이론 입문』(*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145-146.
44)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개제된 바흐친 관련 논문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매년 30-40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최진석, "바흐친과

용한 패러다임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군가를 문학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두 번째 시도이며, 군가 텍스트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군 장병의 문화, 의식, 억압된 욕구에 대한 표현 양상과 의미, 그리고 그 변화를 살피고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개혁, 병영문화 선진화 등과 같은 군 문화의 변화 속에서 국군장병의 인권과 장병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병사를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에 대한 분석과 주류의 지배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은진(2017)은 '군대괴담'연구[45]를 통해 병사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승되는 군대 속 민중의 역사를 고찰하였고, 박재현(2015)은 '군대식 언어의 습득과정'연구를 통해 군복무로 인한 강압적이며 지시적인 의사소통의 내면화와 습득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비판하였다.[46] 또한 윤민재(2008)는 '군 자살' 사고를 남성중심의 왜곡된 군대 문화에서 그 원인을 밝히면서 강압적인 권위주의의 탈피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홍서현(2013)은 해병대 복무에 대한 삶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획기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합리적, 안정적 문화로의 변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47] 이처럼 최근의 연구 동향에서도 군대를 과거의 폐쇄적인 시각이 아닌,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지배 조직이 아닌 하위 조직의 문화상을 고찰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병의 관점에서 비공식 군가의 분석은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연구가 될 것이다. 계급 구분이 명확한 군대에서 고위 계급층의 강압적인 하향식 문화 전파가 일반적이었다면, 하위 계급 속 자발적인 문화 창조와 향유의 모습을 고찰하는 의미 있는 연구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군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병대의 군가 문화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해병대 병사들의 억압된 욕망이 어떤 양식으로 표출되는지 밝히고 그 논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병영

우리 -사유와 수용과 전유, 변용의 문제-,"『노어노문학』 29/2 (2017), 81-82.

45) 진은진, "전설의 현대화와 공포의 전략 - 군대괴담을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68 (2017), 438-472.

46) 박재현, "남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탈 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교육의 필요성 탐색,"『국어교육학연구』 50/1 (2015), 122-146.

47) 홍서현, "군대 경험이 갖는 삶의 의미: 해병대 예비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77.

문화의 개선에 따른 비공식 군가의 소멸 양상, 실태를 고찰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해병대의 비공식 군가에 나타나는 바흐친의 카니발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논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비공식 군가 자체가 공식적인 저자를 규정할 수 없으며 공식적 출판물,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인 예비역 남성을 위주로 군복무를 회고하는 다양한 기록을 인터넷 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소통과 표현 및 공유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지식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은 비공식 및 하위문화(sub culture)의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48] 특히 해병대원들이 가지는 애정과 자긍심은 현역 시절 뿐 아니라 전역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상의 각종 해병대 커뮤니티와 콘텐츠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49] 이와 함께 한국 가요史 및 원로 대중음악가의 기록, 그리고 해병대 복무 경험자의 수기 등에서 파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를 교차 검증하였다. 자료의 세부적 출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비공식 군가의 자료 출처

구분	내용
인터넷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https://www.rokmcva.kr
인터넷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단행본	신호진, 『해병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 (서울: 정민미디어, 1999)
단행본	정성엽, 『군가이야기』 (서울: 디자인인트로, 2016)
단행본	정경은, 『한국 현대 민중가요사』 (서울: 서정시학, 2008)

48) 진은진, “전설의 현대화와 공포의 전략 – 군대괴담을 중심으로 -,” 443.
49) 김주엽, 오영훈, “조직사회화: 해병대 의장대의 문화이입 과정,” 『산업과 경영』 26/1 (2013), 7-8.

연구를 위해 8곡의 해병대의 비공식 군가를 수집하였는데 이 곡들은 모두 기존의 노래에 가사만 바꾼 형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공식 군가의 가사와 함께 원곡의 가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비공식 군가와 원곡[50]의 가사

비공식 군가	원곡
≪빠따가≫	≪맨발의 청춘≫ 최희준, 1964.
빠따도 아구창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시궁창과 화장터를 누비고 다녀도 사랑에는 마음 약한 의리의 사나이 난폭한 해병대라 욕하지 마라 오늘도 고무보트에 목숨을 바친 이름 모를 영혼들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 보는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곤봉가≫ (12:58부터)	≪마음약해서≫ 들고양이, 1979.
곤봉을 메고 뺑뺑이 돌았네 지옥 같은 포항훈련소 식사군기와 보행군기에 쫄따구 바짝 쫄았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꼴아 박아라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뒹굴다 보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군대 좆같네 군대 좆같네 니기미 씨팔 군대 좆같네	마음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사람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리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나는 너를 잡지 못했네

50) 원곡의 가사와 정보는 “유튜브” 및 “네이버 뮤직”을 참고하였다. https://www.youtube.com/ [2020년 1월 7일 접속]; https://music.naver.com/home/index.nhn [2020년 1월 7일 접속].

비공식 군가	원곡
≪묵사발[51]가≫	번안곡: ≪워싱턴 광장≫ 정 씨스터즈, 1965.
저 넓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해병대라네 해병대가 가는 곳에 묵사발 있고 해병대가 가는 곳에 승리가 기다린다 고무보트 울러 메고 어디로 가나 성난 파도 넘고 넘어 수색하러 가지 해병대가 가는 곳에 묵사발 있고 해병대가 가는 곳에 승리가 기다린다	저 넓은 광장 한 구석에 쓸쓸히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 가슴 설레이네 벤죠줄을 울리면서 생각에 젖어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 만나보고 싶네 저 넓은 광장 한 구석에 외로이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난 알고 싶어지네 먼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젖어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 만나보고 싶네
≪말뚝가≫	≪라바울 속요≫ (ラバウル小唄)[52]
이제 가면 해병대대 니기미 씨팔 포항 땅이다 그리운 영자 남겨두고 나만 홀로 떠나갑니다 사랑은 외기러기 외기러기 영자야 제대하는 그 날까지 정조만은 지켜다오 저 별을 보고 저 달보니 니기미 씨팔 미치겠구나 보고픈 영자 생각하니 탈영도 하고 싶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 영자만을 위해서라면 좆같은 군대삼년 몸으로 때우렵니다 언제 한 번 집에 가나 니기미 씨팔 아직 쫄따구 집에 가니 마누라 하는 말 여보 당신 왜 왔소 요즘 군대 좋다는 데 말뚝 박지 좆 빨러 왔소 좆같은 해병생활 견디어 나가렵니다	원곡은 닛타 하치로(新田八郎)가 부른 ≪남양항로≫(南洋航路)라는 노래.[53]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이 파푸아 뉴기니 주둔시 남양항로의 곡조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구전되어 불린 진중가요(陣中歌謠)이다.

51) 얻어맞거나 하여 얼굴 따위가 형편없이 깨지고 뭉개진 상태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19년 12월 28일 접속].

52) https://www.youtube.com/watch?v=B_YWPf7LGhM [2019년 12월 28일 접속].

비공식 군가	원곡
≪곤조가≫[54]	≪부라보 해병≫ (이인섭 작사, 정민섭 작곡)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 편지를 띄우고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 춤을 춥니다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정열 어느 누가 막으랴
처녀 열아홉 살 아름다운 꿈속의 I Love You 라이라이라이라이 차차차! 라이라이라이라이 차차차!	라이라이라이라이 차차차 라이라이라이라이 차차차
당신만이 그리워서 키스를 하고요 당신만이 그리워서 딸딸이를 칩니다	사랑에는 약한 해병 바다의 사나이 꿈속에서 보는 처녀 나는 너를 좋아해
오늘은 어디 가서 깽판을 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지나	오늘은 어느 곳에 훈련을 받고 휴가는 어느 날짜 기다려보나
우리는 해병대 R.O.K.M.C. 헤이빠빠 리빠 헤이빠빠 리빠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헤이빠빠 리빠 헤이빠빠 리빠	우리는 해병대 R.O.K.M.C. 헤이빠빠 리빠 헤이빠빠 리빠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빠빠리빠 헤이빠빠리빠
아침에는 식사당번 저녁에는 불침번에 때때로 완전무장 연병장을 구보하니 이것이 쫄병생활 저것이 고참생활 알고도 모르는 게 쫄병인가 하노라	부라보 브라보 해병대
우리 마누라 키가 작아 싹싹하기는 그만인데 부엉이 눈알을 뜰 때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못 당해 Yes OK 나는 좋아 Yes OK 나는 좋아	≪나는 열일곱 살이에요≫ 박단마, 1938. 나는 가슴이 울렁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열일곱 살이에요
가만히 살짝이 오세요 아프지 않게요 언제나 수줍은 긴자꼬[55] 우리 마누라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별빛도 수줍은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53) 나무위키(검색어: “라바울 속요”) https://namu.wiki/w/%EB%9D%BC%EB%B0%94%EC%9A%B8%20%EC%86%8D%EC%9A%94#fn-3 [2019년 12월 28일 접속].

비공식 군가	원곡
≪세무워카≫	번안곡: ≪슬픈 영화≫ 정시스터즈, 1965.
달동네에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돼요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나에게 아이러브 유러브미 내가 알게 뭐에요 몰라요 라요라요라요 난 정말 몰라요 오오오 세무세무워카 해병대만 신는 워카 오오오 세무세무워카 나를 울려요 극장구경 가자더니 여관방엔 왜가요 죄 없는 팬티 끈은 왜 자꾸 만지시나요 그것만 만지면 취직이 되나요 몰라요 라요라요라요 난 정말 몰라요 오오오 세무세무워카 해병대만 신는 워카 오오오 세무세무워카 나를 울려요 유방을 빨려거든 양쪽 다 빨아주세요 한쪽만 빨면은 짝짝이가 되잖아요 짝짝이가 되면은 엄마한테 혼나요 몰라요 라요라요라요 난 정말 몰라요 오오오 세무세무워카 해병대만 신는 워카 오오오 세무세무워카 나를 울려요	그 어느 날 쓸쓸히 나 홀로 갔다네 그이와 나란히 가고 싶었지만 약속을 지킬 일 있다길래 나 홀로 쓸쓸히 그곳에 갔었다네 Oh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Oh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밝은 불이 켜지고 뉴스가 끝날 때 나는 깜짝 놀라 미칠 것만 같애 그이와 나란히 앉은 사람은 언제나 다정하던 나의 친구 Oh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Oh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나에게 어머니는 웬일이냐고 물었죠 그러나 나의 서글픈 대답은 언제나 슬픈 영화는 날 울려줘요 Oh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Oh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54) ≪곤조가≫는 해병대의 '공식'군가인 ≪부라보 해병≫과 가요 ≪나는 열일곱 살이에요≫의 후렴 일부분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띄고 있다. 정성엽, 『군가이야기』 (서울: 디자인인트로, 2016), 90.

55) "銀座子"의 일본식 발음이다. 앞의 단어 "銀座"(긴자)는 일본 최고의 유흥가이며 "子"(꼬)는 여성 인칭어미 이므로 유흥가의 여자, 즉 기생을 의미한다.

비공식 군가	원곡
≪시궁창가≫	≪늙은 군인의 노래≫ 김민기, 1976.
길고 긴 포항 시궁창 정신없이 헤메어 봐도 내 마음에 드는 시궁창 죽도뿐이다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좋아 보트타고 페더링 하며 살아가리라 깡다구와 의리 속에 해병은 살아간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서울의 왕대포집≫ 서울의 왕대포집은 해병대의 안식처 서울의 사창가는 해병대의 보금자리 막걸리 한 사발에 목로주점 주인마담 해병대의 사랑을 받고 하룻밤 풋사랑에 순아는 울었다오 나 없이 살순 없다고 계급이 쫄병이라고 사랑에도 쫄병이더냐 목로주점 주인마담 눈물의 순아야 내 이름은 순아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에레나예요 그냥 그냥 17번으로 통한답니다 술이 좋아 마신 술이 아니랍니다 괴로와서 마신 술에 내가 취해서 고향의 부모님이 고향의 여동생이 보고파서 웁니다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카바레에서 보았다는 순아는 거짓이예요 새빨간 립스틱 순아는 다홍치마 순아는 오늘밤도 파티장에서 춤을 춥니다.	≪에레나가 된 순이≫ 안다성, 1954.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카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석유 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실패 감던 순이가 다홍치마 순이가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순이 순이 오늘 밤도 파티에서 춤을 추더냐 그 빛깔 드레스에다 그 보석 귀걸이에다 목이 메어 항구에서 운다는 순이 시집갈 열아홉 살 꿈을 꾸면서 노래하던 순이가 피난 왔던 순이가 말소리도 이상하게 달라진 순이 순이 오늘 밤도 양담배를 피고 있더냐

Ⅳ. 분석 결과

1. 패러디 양식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비공식 군가는 대중가요 등 원곡의 멜로디에 가사를 바꾸는 양식을 가진다. 특히 원곡과 가사의 문장 구조는 동일하나 그 속의 단어 일부만을 바꾸는 방식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카니발의 패러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 양식에는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는 문장에서 '밥' 대신 '빵', '국수', '라면'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원리라 할 수 있다. 원곡의 가사와 비공식 가사의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비공식 군가와 원곡의 가사 비교

구분	제목	가사 비교
원곡	맨발의 청춘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비공식 군가	*빠따가*	*빠따도 아구창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시궁창과 화장터를 누비고 다녀도*
원곡	워싱턴 광장	저 넓은 광장 한 구석에 쓸쓸히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 가슴 설레이네
비공식 군가	*묵사발가*	*저 넓은 바다 한 가운데 우뚝 서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해병대라네*
원곡	부라보 해병	오늘은 어느 곳에 훈련을 받고 휴가는 어느 날짜 기다려보나
비공식 군가	*곤조가*	*오늘은 어디 가서 깽판을 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지나*

백욱인(2018)은 1960년대 유행한 번안가요[56]에서 '노가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번안가요는 태생적인 특성상 '노가바'를 전제로 할 뿐 아니라 부르는 집단과 계급에 따라 가사가 변화되며 이를 통해 당사자의 사연을 담은 조롱과

56) 외국 노래가사의 원문을 시대나 풍토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 번역과 달리 향유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창작이 포함된다.

풍자가 함축된 노래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57] 마찬가지로 해병대의 비공식 군가는 원곡의 가사를 해병대 고유의 정서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창작한 일종의 노가바이자 번안가요이며 곧 패러디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해병대의 병사로 대변되는 하위계급이 대중가요라는 지배적 담화양식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58] 또한 풍자와 조롱을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패러디 양식으로,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고 기존의 관습을 파괴하는 탈권위적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59]

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와 형식은 유지한 채 명사 혹은 동사만을 바꾸는 모습에서 우리는 구조주의 언어학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비공식 군가의 가사는 랑그(langue)의 엄격한 준수 속에서 파롤(parole)의 선택을 통해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패러디 양식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60]

2. 환유의 과장성

노래의 가사는 시(詩)적 이다.[61] 시적 표현의 구성 원리인 은유와 환유 중 해병대의 비공식적 군가에는 환유적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상의 한 부분으로 그 대상의 전체를 지시하는 환유는 '인접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비유방법

57) 백욱인, "오시마 나기사의 일본춘가고와 대중음악 전유비판," 『대중음악』 22 (2018), 62-63.
58) 장성규, "식민지 시대 소설과 비문해자들의 문학사," 511.
59) 나병철, 『문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2000), 254.
60) 스위스의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는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언어의 배열과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이자 체계를 랑그라고 부르며, 랑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생성된 언어를 파롤이라고 칭했다. 여기서 파롤이 생성되는 보편적인 법칙인 랑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언어 전반의 체계와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최승언 역 (서울: 민음사, 1990), 29-30.
61) 일제강점기 시문학파의 동인으로 활동하였던 이하윤(1906-1974)의 연구에서 그는 다수의 대중가요를 작사하였고 자신의 시집에도 대중가요 가사를 수록하고 있어 당시부터 대중가요의 가사는 시로 인식되고 왔음을 알 수 있다. 장유정, "이하윤 대중가요 가사의 양상과 특성 고찰," 『한국민요학』 28 (2010), 148.

으로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 전체를 설명하는 것 보다 몇 가지 특징만을 과장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로 인해 문학에서 널리 활용된다.[62] 해병대 복무의 애환과 훈련의 어려움을 구구절절히 묘사하는 것보다 대표적인 훈련이나 얼차려[63] 한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청자의 이해와 공감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노래 가사 속에서 원곡의 일부 단어 교환만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율적이며 직관적인 환유적 표현은 아래와 같이 다수 발견된다.

빠따도 아구창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시궁창과 화장터를 누비고 다녀도 ≪빠따가≫ 中

빠따, 아구창은 구타, 얼차려 등 군생활 속 폭력과 어려움, 부조리를 비유하고 있으며, 시궁창과 화장터는 거친 훈련, 특히 지옥주로 표현되는 해병대의 극한 훈련 환경과 이를 극복해 내는 해병대원의 자부심을 묘사한다.

곤봉을 메고 뺑뺑이 돌았네
지옥 같은 포항훈련소 ≪곤봉가≫ 中

곤봉은 '더플백(duffle bag)', 일명 '떠블백'이라 불리는 원통형의 배낭을 말하는데, 부대를 옮길 때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기에 저장 공간이 매우 크고 무겁다.[64] 또한 뺑뺑이는 일명 '선착순'이라고도 불리는 얼차려성 구보이다. 예를 들어 운동장 한 바퀴를 뛰는데 선착순으로 도착한 몇 명만 휴식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다시 운동장을 뛰게 하는, 반복적인 얼차려를 의미한다. 맨몸으로 받는 뺑뺑이도 고단한데, 무거운 곤봉을 메고 뺑뺑이 얼차려를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게다가 곤봉을 메는 시기는

62) 박진수, "한국 대중가요의 수사와 표현 양식 – 심수봉 노래의 은유와 환유 -," 『새국어생활』 29/4 (2019), 50-51.
63) 군의 기율을 바로잡기 위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폭력적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일.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0년 1월 24일 접속].
64) 신호진, 『해병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 (서울: 정민미디어, 1999), 159.

기초 군사훈련을 막 끝내고 실무부대로 배치되는 시점이다. 아직 군생활의 적응은 물론 체력적으로도 완성되지 않는 신병 초기에 당하는 가혹한 얼차려에 대한 고초를 함축하고 있다.

해병대가 가는 곳에 묵사발 있고
해병대가 가는 곳에 승리가 기다린다 ≪묵사발가≫ 中

얻어맞거나 하여 얼굴 따위가 형편없이 뭉개진 것을 묘사하는 묵사발은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 적을 '묵사발' 내어 승리를 얻겠다는 자신감과 의지의 표명 뒤에는 구타와 얼차려를 당하여 '묵사발' 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숨어 있다.

내 마음에 드는 시궁창 죽도뿐이다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좋아
보트타고 패더링하며 살아가리라 ≪시궁창가≫ 中

상륙작전(上陸作戰)[65]이 주 임무인 해병대원에게 있어 진흙과 벌로 가득 찬 해변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체력과 기술은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다. 따라서 해병대원의 주(主) 훈련장은 해변이며 유사한 색과 질감을 빗대어 '시궁창'으로 묘사한다. 또한 훈련을 통해 진흙 범벅의 지저분해진 몰골과 초라한 처지가 시궁창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동시에 '시궁창'이라 표현될 만큼 극한의 환경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해병대원의 극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출되는 것이다. 보트와 패더링[66]은 가장 힘든 훈련을 표현하는데 이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표현은 극

65) 함정(艦艇, warship)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전투력을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투사하는 군사작전을 의미한다.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02 Joint Doctrine for Amphibious Operations* (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01), I-1.

66) 해병대의 주 임무인 상륙작전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고무보트(IBS: Inflatable Boat Small) 훈련은 힘들기로 악명 높다. 약 100kg 무게의 보트를 6명이 1개조가 되어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헤드 케링(head carrying)과, 직접 보트를 타고 팀워크를 맞춰 노를 젓는 패더링이 훈련의 중점이 된다. 해병대 공식 블로그, "날아

복을 통한 애착과 자부심의 표현이다.

서울의 왕대포집은 해병대의 안식처
서울의 사창가는 해병대의 보금자리 ≪서울의 왕대포집≫ 中

술과 성교는 군대 안에서 절대 금지된다. 그러나 신체 왕성한 20대의 젊은 이들에게 이 금기는 가장 큰 욕구이다. 군부대 주변에 유흥가가 밀집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해병대원들은 훈련과 내무생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바로 왕대포집과 사창가로 묘사하고 있다. 술과 여자라는 매개체는 인간, 특히 남성의 원초적인 욕구이자 향락의 수단의 원형(archetype)이다. 노래 가사를 통해 해병대원은 현실의 고통과 억압을 잊고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환유적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해병대 생활의 어려움과 술・성적 욕구의 금지와 같은 '현실에 대한 불만의 과장된 표출'임을 알 수 있다. 조국에 대한 헌신과 군인의 자부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전우애 등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표현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환유는 현실의 불만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고발을 나타내는 데 널리 활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67]

3. 전복(顚覆)의 욕망에 대한 그로테스크적 치환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조직인 군대에서 가장 하위계급인 병사는 일상 속에서 상급자로부터 지배당한다. 부조리한 지시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당해 온 그들은 일상의 위계를 뒤집고 내가 지배자, 정복자가 되는 이상과 욕망을 비공식 군가의 가사에 반영하였다. 이때, 일상의 위계에서 '진지함, 각오'를 요하는 목표와 대상을 성적이며, 일탈과 향락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바꾼 '치환'[68]이 발견된다. 이는 특히 '성적 욕망'과 '폭력적 욕망' 등 2

라 마린보이" https://rokmarineboy.tistory.com/ [2020년 1월 24일 접속].

67) 환유를 사용한 시의 전형적인 특징은 선동성이다. 특히 민중시, 민족시에서 환유를 주된 수사법으로 활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권혁웅, "현대시와 환유," 『한국문예비평연구』 55 (2017), 223-224.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성적 욕망'은 군내부에서 금지된 '성교를 통해 여성의 소유'를 표현하고 있고, '폭력적 욕망'은 빠따와 아구창을 맞는 고통을 '폭음과 만취로 인한 난동'으로 승화함을 묘사하고 있다.

시궁창과 화장터를 누비고 다녀도 ≪빠따가≫ 中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곤조가≫ 中

지배 계급이 추구하는 '적의 무찌름, 정복'을 전복하여 술집에서의 난동과 폭행, 그리고 기물파손으로 치환하고 있다. 특히 뒷골목은 하층민들의 향락과 폭력적 일탈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기호로 활용된다.

서울의 왕대포집은 해병대의 안식처
서울의 사창가는 해병대의 보금자리 ≪서울의 왕대포집≫ 中

아이러브 유러브미 내가 알게 뭐에요
몰라요 라요라요라요 난 정말 몰라요 ≪세무워카≫ 中

유흥의 중심인 환락가가 해병대원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로 묘사되는데, 거기서 만큼은 주인 노릇이나 대접을 재대로 받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이다. 또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가사를 통해 여성을 성적 정복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의 본질적 목표 대신 이른바 '뒷골목'의 정복, 그리고 여성에 대한 육체적 지배 등 저속한 표현의 바탕에는 현존의 고급문화, 지배문화로부터 해방의 염원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병대 장병들은 비공식 군가의 가사를 통해 염원하던 향락의 유토피아를 표현하였고 카타르시스를 느껴 온 것이다.[69]

그러나 바흐친이 주목하는 카니발 정신이 혁명적인 것이라기보다 제도 내에서의 '허가된 잔치일 뿐'이라는 반론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끝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한시적인 시간, 허용된 공간으로 혁명적 가치관의 실

68) 황지혜, "유쾌한 상대성의 르네상스: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비교문학』 67 (2015), 411.
69)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아』, 89-93.

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70] 군대라는 조직에서 혁명과 전복은 절대적으로 금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억압과 스트레스의 적시 적절한 배출과 배설은 사기진작을 통한 무형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에 지배계급은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카니발은 유익한 것이라 판단하고 용인하였고, 지배의 전략으로 활용되어왔다.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카니발은 지배계층이 사용한 일종의 전략이자 사회 안전장치이며, 군의 지배층이 비공식군가를 용인한 것도 동일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각종 악성사고에 대한 대책, 선진병영문화 정착에 대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유린과 폭력적 표현에 대한 저항감은 비공식 군가 소멸의 단초가 되었다.

4. 욕설과 비속어: 해병대원의 광장의 언어

지배계층의 문화와 권위를 조롱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비속화가 효과적이다.[71] 해병대 비공식 군가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욕설과 비속어라는 언어적 유희를 통해 억압적인 헤게모니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경험함은 물론 계층적 불평등을 거부하고 조롱할 수 있게 한다.[72]

> 군대 좆같네 군대 좆같네
> 니기미 씨팔 군대 좆같네 ≪곤봉가≫ 中

짧은 가사 속에 '좆같네', '니기미', '씨팔' 등 3가지의 욕설이 반복된다. 남성 성기를 비속하게 이름과 동시에 '사물이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에 싫다'는 뜻의 '좆같네'와 '네 어미'의 줄임말이자 '어떤 일에 대하여 몹시 못마땅할 때 욕으로 하는 말'인 '니기미', 그리고 여성의 성기 또는 성교를 비속하게

70) 여홍상, 『바흐친과 문화이론』, 171.
71) 송영민, 강준수, "바흐친 카니발리즘을 통한 축제 속 공연 분석 - 2014 춘천마임축제의 공연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4 (2016), 167.
72) 김영아, 『한국 근대소설의 카니발리즘』 (서울: 푸른 사상, 2005), 70; 송영민, 강준수, 『바흐진 카니발리즘을 통한 축제 속 공연 분석 - 2014 춘천마임축제의 공연을 중심으로』, 168에서 재인용.

이르는 '씹'의 관형 형태인 '씹할'이 연음화된 '씨팔' 이 세 가지 욕설이 동시에 사용된 것은 최악(最惡)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73] 군대가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특히 자신의 어머니와의 성교를 묘사하는 패륜적 최악의 욕설을 부여함으로써 군대라는 문화와 권위를 철저히 조롱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제 가면 해병대다. 니기미 씨팔 포항 땅이다
좆같은 군대3년 몸으로 때우렵니다
좆같은 해병생활 견디어 나가렵니다 ≪말뚝가≫ 中

예비역들이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가 있는 지역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기억하기 싫고 부정하고 싶은 군복무에 대한 기억을 부대가 있는 지명에 투사한다. 포항은 해병대의 훈련단이 있는 곳으로, 해병대에 입대한 모든 신병이 거쳐 가는 곳이다. 모든 군생활 중 훈련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기억된다. 아직 군대라는 곳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인에서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하는 낯선 과정,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라는 속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훈련의 고통을 배가시킨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해병대원은 단지 "견디어 나가렵니다"라는 가사처럼 수동적인 고통의 감내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좆같은 해병 생활"이라는 불만과 조소 이면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낸 자부심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늘은 어디 가서 깽판을 치고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곤조가≫ 中

근성(根性)의 일본식 발음인 '곤조'는 "고집이 세고 고약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를 의미하며 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술주정에서 기인한다.[74] "일을 훼방하거나 망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깽판'은

73)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2020년 1월 8일 접속].
74)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2020년 1월 8일 접속].

바로 곤조의 결과이며 '조지는'행위를 통해 발현된다. ≪곤조가≫라는 노래의 제목부터가 비속어이며, 음주와 함께 술주정과 난동을 부리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군대 속에서의 고통과 억압을 술과 폭력으로 발산하는 것을 해병대의 모습이자 멋으로 묘사하며 힘든 군생활로 인해 억압된 욕망을 술주정과 난동으로 승화하는 일종의 보상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깡다구와 의리 속에 해병은 살아간다 ≪시궁창가≫ 中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힘이나 고집'을 속되게 이르는 깡다구라는 단어에서 결국 해병대원의 생존전략은 '인내'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병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과 성취감, 그리고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해병대의 비공식 군가 속의 욕설과 비속어는 권위에 대한 조롱과 전복을 위한 '언어적 유희'일 뿐만 아니라 군대 속, 특히 병사들만의 언어구조이자 질서, 즉 해병대라는 '광장의 언어'임을 유추할 수 있다. 사람은 그가 속하는 사회의 언어구조에 편입되며,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과 집단의 성격을 규정한다.[75] 해병대라는 남자만의 세계에서 '강함'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수단이 바로 욕설과 비속어이며, 그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병대 속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76]

5. 비공식 군가가 허용되는 광장의 시・공간적 크로노토프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은 사순절 직전이라는 시간적 광장과 민중들이 함께 모이는 생활의 터전인 시장과 거리라는 공간적 광장이 만나는 교차점, '크로노토프'라 불리는 지점에서만 허용되었다.[77] 마찬가지로 해병대의 비공식 군가에

75) 장성규, "식민지 시대 소설과 비문해자들의 문학사," 506-509.
76) 해병대는 6.25 전쟁 시 자원입대한 해병 여자 의용군이 1955년 전역한 이래 2001년 7명의 해병 학사장교가 임관하기 전까지 금녀(禁女)의 지역으로 육・해・공군 등 타군에 비해 여성에 대한 문호가 가장 늦게 열렸다.
77) "시간성과 공간성의 결합을 통해 설명되어지는 인간의 삶과 본질에 대한 이해는 광장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간학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박승규, "광장, 카니발과 미학적 정치공간," 68.

서 오직 이를 허용하는 시・공간적 광장의 교차점인 크로노토프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유튜브의 ≪대한민국 해병대 비공식 군가(사가, 싸가)메들리≫[78](Jcdiscov M)의 댓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그 때는 군가가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구보 때도, 행군때도 밤낮 거의 사가를 불렀죠."
> "예전 선・후임들과 구보하면서 싸가 부르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 "구보할 때 많이 부르던 군가네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처럼 비공식 군가는 정해진 '광장'에서만 불려짐을 알 수 있다. 구보는 여럿이 무리지어 달리기 하는 것을 뜻하며 군대에서 기초체력 단련을 위해 가장 많이 실시되는 훈련이다. 특히 매일 아침점호시간에 실시되는데, 이는 06:30~07:00시 어간으로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이 출근하기 전이며 단 1명의 당직사관(當直士官)[79]만이 부대 전체를 관리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구보는 병사 중 최고 계급의 선임자가 인솔하기 마련이며, 지배계급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비공식 군가가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병대 전역자의 수기에서도 묘사되고 있다.

> "조별 과업으로 실시된 구보. 전방이라 별다른 연병장도 없어 전방 순찰로에다 민통선 입구까지 '니기미 C발'로 시작해서 '조지나 개 10이다'로 끝나는 공윤심의 X등급 판결 군가로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녔다."[80]

비록 군대는 자발적으로 오는 곳이 아니기에 엄밀히 말해 군대 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장은 없다. 그러나 권위와 규율, 질서가 지배하는 공식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금지된 노래를 목청껏 부름을 통해 그 규제들을 부정하고 강도 높은 훈련의 고통을 망각하며 힘든 군생활을 조롱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껴

78) https://www.youtube.com/watch?v=By7FI1rzljI [2020년 1월 24일 접속].
79) 야간 또는 휴일에 지휘관을 대신하여 부대의 제반 업무를 책임지는 군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0년 1월 24일 접속].
80) 신호진, 『해병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 217.

왔던 것이다. 나아가 공식군가의 거룩함, 그리고 조국, 국가,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해학적으로 승화한다는 차원에서 비공식 군가가 불리는 크로노토프인 훈련장과 훈련시간은 다소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록 불완전한 광장이지만 군내에서의 허용된 광장이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식적 권위가 미치지 않는[81] 시・공간적 교차점이었기 때문이다.

6. 다양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평등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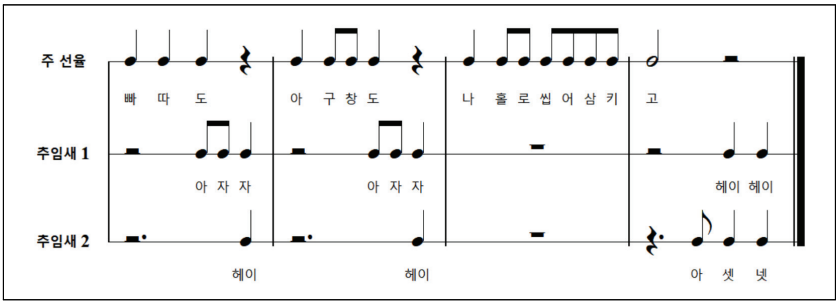
카니발에는 무대와 관객석이 나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모습에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의 방식을 가지지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여기서는 지배계층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함으로써 계급에 대한 해방감과 함께 평등을 느낄 수 있었다. 해병대 비공식 군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부르고, 누군가는 감상하는 문화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부르는 것이었다. 사실 군대에 입대하는 것 자체가 카니발 참여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똑같이 짧게 머리를 깎고,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계급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라는 계급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가진 해병대 병사가 된 자체가 카니발을 향유할 수 있는 하층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복장, 같은 훈련을 받는 동등한 입장에서 부른다[82]는 점은 비공식 군가의 가창이라는 카니발에 과감히 참여하게 하는 일종의 '가면'역할을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가 동일한 해병대 복장과 신분은 '나'를 감추고 '우리'라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감 있게 비공식군가의 가창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한편, 카니발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천편일률적 행위와 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일탈적 행위와 목소리가 서로 뒤엉키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해병대 비공식 군

81) 중세 프랑스의 카니발은 파리보다 지방에서 더욱 자유롭고 풍부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파리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가장 심했으며 파리에서 멀어질수록 그 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선자, 『축제의 정치사』(파주: 한길사, 2008), 206-207.

82)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야』, 90.

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 빠따가 리듬악보[83]



모두가 똑같은 멜로디만 부르는 것이 아닌 주고받기도 하고 추임새도 어우러진다. 위의 악보는 두 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가사를 채보하였는데, 오직 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닌, 두・세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룸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선율과 추임새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상호 대화적인 형태로 들린다.

7. 축제의 종료: 2000년대를 기점으로 소멸 추세

해병대 비공식 군가는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급속히 소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인터넷 보급 등 군복무 정보의 개방화, 악성사고로 인한 병영문화 혁신과 악폐습 근절 등에서 기인한다.[84] 2005년 1월 10일 육군훈련소 인분사

83) 유튜브의 ≪빠따가≫ 가창 영상을 악보로 채보함에 있어 선율 있는 오선지 악보가 아닌 리듬만을 표시하였다. 그 이유는 노래이기보다는 리듬 있는 '구호'이자 '소리 지름'에 가깝게 들리기 때문이다. "목청 떨어질 정도로", "목에 피터지게"라는 댓글에서 군가의 가창은 '크게 소리 지름'이 미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악보는 세 목소리(주선율, 추임새 1, 추임새 2)가 동시에 울림을 보여준다. "해병대-빠따가[인명구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악!," https://www.youtube.com/watch?v=AoloF_pQ6lk [2020년 2월 20일 접속]; "해병 695기 동기회 전국모임. 빳다가," https://www.youtube.com/watch? v=d5xF0epAJ1s [2020년 2월 20일 접속].

84) 문민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군 내부의 비리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건[85]으로 인해 군 인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같은 해 6월 19일 김일병 총기 난사사건[86]으로 병영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의 요구가 빗발쳤다. 해병대 또한 악폐습과 사고로 심각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87] 이처럼 2000년대 전후 신세대 병영문화와 구시대적 악습의 갈등으로 군내 사고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공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신세대 장병과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열악한 복지, 불합리한 규율 등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갈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88] 그리고 완전 금녀(禁女)지역이었던 해병대의 여군 입대는 남성중심의 해병대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성적 유린, 강간의 묘사를 담은 비공식 군가는 상식적으로 허용될 수 없었다.[89]

이처럼 군은 대대적인 병영문화개선정책을 통해 악폐습 근절, 자기개발 여건 마련, 인권보장, 자율적 생활 보장, 병영시설 개선을 추진하였고 특히 구타, 폭언, 욕설 등 군대의 악폐습의 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9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식군가도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갔는데, 무엇보다 직접적인 금지 지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유튜브 '대한민국 해병대 비공식 군가(사가, 싸가) 메들리'(Jcdisco M)에서 다음과 같은 댓글이 발견된다.

있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개된 많은 군 문제와 사회고위층의 병역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삼과 함께 군복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였다. 양승훈 "2000년대 군대개혁과 군복무 중 '자기개발'을 통한 계급 재생산-엘리트 남성들의 군복무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0-41.

85) 화장실 변기청소를 문제 삼은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을 것을 강요한 사건으로 당시 중대장은 구속 수감되고 국방부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은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에 나선다. "육군훈련소 중대장, 훈련병 집단 가혹행위 파문,"『연합뉴스』, 2005년 1월 20일.

86)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초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김일병은 내무실에 수류탄 1발과 소총 44발을 난사하여 장병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GP 총기 난사 사건일지,"『연합뉴스』, 2005년 11월 23일.

87) 최현수, "실탄도난 해병사단 이번엔 구타 분신,"『국민일보』, 2002년 4월 23일.

88) 남봉균, "신세대에 요구되는 '자율적 사고'의 철학적 근거,"『정신전력 연구』 20 (1997), 142; 권규학, "신세대 장병 지휘통솔 방안"『정신전력 연구』 28 (2001), 194-195.

89) "7인의 여자해병 6월 말 사상 첫 임관,"『경향신문』, 2001년 3월 23일.

90) 국정 브리핑,『병영문화 개선 추진방향』, 2007.

"필승 2사 청룡 720기 인사 올립니다. 병장 2호봉 때 사가금지 공문 떨어졌는데 무시하고 구보시 사가 부르곤 했는데 영창 보낸다고 해서 금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승 772기입니다. 요즘 해병대는 싸가 모릅니다. 장교 및 깔꾸리 색키들이 구타 저변 문제라고 못 부르게 한다나 전통을 없애는 간부 색키들"
"14년 군번입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 싸가 인계하는 거 걸리면 만창[91]이었습니다. 지금은 섬 빼고 다 멸종이라고 들었습니다."[92]

최근 군 내 광장이 확대되었다. 스트레스 요인의 감소와 욕구 해소 수단의 증가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93] 이에 따라 비공식 군가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엄밀히 말하자면 비공식 군가는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 암기에 의한 대체제였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비공식 군가의 가창이 억압된 욕구의 발산에 활용되는 것만큼 이를 암기하고 가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 그리고 구타, 얼차려 등 고통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억압된 욕구의 정도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그 해소의 통로가 확충되었고, 구타 및 얼차려 등 내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분위기에서 비공식군가는 자연스레 그 필요성을 잃게 된 것이다. 공식적 권위와 질서유지를 위한 '구심력'에 대항하여 카니발이라는 '원심력'이 나타났다는 이론적 배경을 빗대어 보자면, '구심력'의 약화로 인해 '원심력' 또한 약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축제다운 축제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표현에서도 비공식 군가의 소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비공식 군가의 가창은 모두가 참여하는 행위였지만, 동시에 '열외'를 허용하지 않는 의무적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비공식 군가의 가창을 통해 공식문화의 권위와 위계를 조롱하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과 거부

91) 복무 중 최대 징계 형량인 영창 14박 15일을 의미.
92) https://www.youtube.com/watch?v=By7FI1rzljI [2020년 2월 20일 접속].
93)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2005년 7월 22일 '병영문화개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여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조치를 병행하였다. 이후에도 주기적인 각 군별, 부대별 병영문화혁신의 촉진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부적인 결과로는 병 상호간 지시 및 간섭 금지, 평일 외출제도, 일과 이후 자유시간의 보장, 복지시설의 확충, 스마트폰 사용 등이 손꼽힌다.

감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동질감 형성과 단합 유도라는 미명하에 한 목소리로 부르기를 강요하였으나 이제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군 내부에서도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비공식 군가의 가창을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비단 비공식적이라서가 아닌, 욕설과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의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힘을 잃게 되었으며 규정과 원칙, 그리고 개인 의사의 존중에 입각한 병영생활만이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공식 군가의 소멸과 선진병영문화의 정착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해병대의 독특한 문화인 비공식 군가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해병대 장병들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 공식문화의 권위와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었고, 지배계층의 감시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 즉 '크로노토프'에서 비공식군가라는 카니발을 통해 갱생과 창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무대와 관객이 나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짐 속에서 과격하고 외설적인 가사를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노래가사에서 드러나듯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병영문화와 구시대적 악습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터져 나온 각종 사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병영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비공식 군가는 이제 병영 내에서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한때 해병대 장병의 정신과 전우애를 하나로 묶는 구호로써 구심점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나 공식행사나 고위급 지휘관・장교들에게만은 '들리지 않던 소리'였던 비공식 군가는 이제 해병대원 모두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된 것이다. 이는 단지 폭력과 변태적 향락에 대한 반감이 아닌, 권위와 폭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의 '군대식' 병영문화에서 이제는 개인의 의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리적 문화가 군대 속에도 정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해병대 비공식 군가의 카니발적 특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위문화는 구전(口傳) 위주로 전승되는 그 특성상 기억에서 망각되기 쉽다. 따라서 해병대원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그 목소리를 담고 있는 비공식 군가를 최초로 기록하고 분석한 시도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가 잊혀져 가는 현 시점에서 시기적절할 뿐 아니라 이후 군 문화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군의 하위문화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된 비공식 군가의 연구이기에 현상의 개괄적 분석에 머물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시야를 좀 더 확장하여 비공식 군가대신 무엇이 장병들에게 카니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설 때다.

한글검색어: 해병대, 군가, 비공식 군가, 카니발, 바흐친, 노가바, 패러디
영문검색어: Marine Corps, Military Song, Carnival, Bakhtin, Changing Lyrics of Popular Songs(No-Ga-Ba), Parody

참고문헌

강진순. “군가 활성화를 위한 장병 의식 조사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국방부. 법률 제13631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17.

국정 브리핑.『병영문화 개선 추진방향』. 2007.

곽재현.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레스크 고찰-2016 촛불집회 현상.”『관광학연구』 41/7 (2017): 45-60.

권규학. “신세대 장병 지휘통솔 방안.”『정신전력 연구』 28 (2001): 189-226.

권혁웅. “현대시와 환유.”『한국문예비평연구』 55 (2017): 213-245.

김욱동.『바흐친과 대화주의』. 서울: 나남, 1990.

김세훈. “군 장병 군가가창 활성화 연구.”『정신전력연구』 53 (2018): 246-247.

김세훈, 이영주, 이환수. “육군 부대가의 구조언어학적 분석.”『한국군사학논집』 75/2 (2019): 121-138.

김영순, 이종하. “대중문화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의 비판적 기술.”『한국언어문화』 27 (2005): 351-371.

김영아.『한국 근대소설의 카니발리즘』. 서울: 푸른 사상, 2005.

김주엽, 오명훈. “조직사회화: 해병대 의장대의 문화이입 과정.”『산업과 경영』 26/1 (2013): 1-26.

나병철.『문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2000.

남봉균. “신세대에 요구되는 ‘자율적 사고’의 철학적 근거.”『정신전력 연구』 20 (1997): 141-164.

민진, 김민석. “상징적 접근에 의한 한국 군대 조직문화에 대한 분석.”『한국조직학회보』 9/3 (2012): 29-57.

박동준.『축제와 엑스터시』. 파주: 한울, 2009.

박순제, 이승철. “한국의 사회변동과 해군・해병대 군가의 특색연구.”『해양연구논총』 47 (2016): 131-145.

박승규. “광장, 카니발과 미학적 정치공간.”『공간과 사회』 34 (2010): 60-86.

박재권. “육군 사단가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한일군사문화연구』 9 (2010): 165-191.

박재현. “남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탈 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교육의 필요성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50/1 (2015): 122-146.
박진수. “한국 대중가요의 수사와 표현 양식 – 심수봉 노래의 은유와 환유 -.” 『새국어생활』 29/4 (2019): 47-68.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애국창가』연구.”『이화음악논집』 23/1 (2019): 137-182.
백욱인. “오시마 나기사의 일본춘가고와 대중음악 전유비판.”『대중음악』 22 (2018): 40-68.
송영민, 강준수. “바흐친 카니발리즘을 통한 축제 속 공연 분석 – 2014 춘천마임축제의 공연을 중심으로.”『글로벌문화콘텐츠』 24 (2016): 157-182.
신혜영. “카니발 이론으로 본 한국의 가면극.”『민속학연구』 26 (2010): 115-140.
신호진.『해병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 서울: 정민미디어, 1999.
양승훈. “2000년대 군대개혁과 군복무 중 ‘자기개발’을 통한 계급 재생산-엘리트 남성들의 군복무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여홍상.『바흐친과 문화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오민석.『현대 문학 이론의 길잡이』. 서울: 시인동네, 2018.
윤선자.『축제의 정치사』. 파주: 한길사, 2008.
이강은.『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아』. 서울: 역락, 2011.
이경수.『사나이들은 해병대로 간다』. 서울: 조선일보사, 2004.
이노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한 분석적 비평: 화용론과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영어어문교육』 16/4 (2010): 223-238.
이동춘. “바흐친(Bakhtin), 카니발 그리고 사회적 기능.”『신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신영어영문학회, 2005.
장상윤. “한국 육군 군가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장성규. “식민지 시대 소설과 비문해자들의 문학사.”『현대소설연구』 56 (2014): 497-522.
장유정. “이하윤 대중가요 가사의 양상과 특성 고찰.”『한국민요학』 28 (2010): 147-177.
정경은.『한국 현대 민중가요사』. 서울: 서정시학, 2008.
정성엽.『군가이야기』. 서울: 디자인인트로, 2016.
진은진. “전설의 현대화와 공포의 전략 – 군대괴담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8 (2017): 438-472.
정정호.『전환기의 문학과 대화적 상상력』. 서울: 한신문화사, 1998.
천유철. "5·18 광주 민중항쟁 '현장'의 문화적 실천 양상."『민족문학사연구』 55 (2014): 463-503.
최진석.『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 정치학』. 서울: 그린비, 2017.
_____. "바흐친과 우리 - 사유와 수용과 전유, 변용의 문제 -."『노어노문학』 29/2 (2017), 73-102.
최현수. "실탄도난 해병사단 이번엔 구타 분신."『국민일보』, 2002년 4월 23일.
해병대 사령부.『해병대 문화와 가치』. 서울: 군인공제회 제1문화 사업소, 2000.
홍서현. "군대 경험이 갖는 삶의 의미: 해병대 예비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황지혜. "유쾌한 상대성의 르네상스: 셰익스피어의『말괄량이 길들이기』."『비교문학』 67 (2015): 405-434.
"7인의 여자해병 6월 말 사상 첫 임관."『경향신문』, 2001년 3월 23일.
"육군훈련소 중대장, 훈련병 집단 가혹행위 파문."『연합뉴스』, 2005년 1월 20일.
"GP 총기 난사 사건일지."『연합뉴스』, 2005년 11월 23일.
Bakhtin, Mikhail. *Rabelais and His World.* Translated by Helene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Bakhtin, Mikhail.『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공역. 서울: 길, 2006.
Eagleton, Terry. 『문학이론입문』(*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정남영·김명환·장남수 공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Grout, Donald J.,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서양음악사』(*A History of Western Music*). 민은기·오지희·이희경 외 공역.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9.
Huizinga, Johan.『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 서울: 연암서가, 2018.
Merriam, Alan P. *The anthropology of musi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Saussure, Ferdinand de. 『일반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최승언 역. 서울: 민음사, 1990.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02 Joint Doctrine for Amphibious*

Operations. 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01.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2020년 1월 7일 접속].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19년 12월 28일 접속].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9D%BC%EB%B0%94%EC%9A%B8%20%EC%86%8D%EC%9A%94#fn-3 [2019년 12월 28일 접속].

민중의 소리. "[L2의 플레이리스트] '사랑을 했다'는 왜 '초딩'들의 '국민가요'가 됐을까." http://www.vop.co.kr/A00001309587.html [2020년 1월 3일 접속].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2020년 2월 20일 접속].

"해병대 공식 블로그 날아라 마린보이." https://rokmarineboy.tistory.com/ [2020년 1월 24일 접속].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https://www.rokmcva.kr [2020년 1월 24일 접속].

국문초록

해병대 비공식 군가의 카니발적 특성

김 세 훈

본 연구는 해병대 병사들 속에서 자생되고 구전을 통해 널리 불렸던 비공식 군가라는 독특한 하위문화를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 1895-1975)의 카니발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해병대 장병들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 공식문화의 권위와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었고, 지배계층의 감시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 즉 '크로노토프'에서 비공식군가라는 카니발을 통해 갱생과 창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무대와 관객이 나뉘지 않는 어우러짐 속에서 과격하고 외설적인 가사를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병영문화와 구시대적 악습을 묘사한 가사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군내 악성 사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병영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비공식 군가를 병영 내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한때 해병대 장병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나 공식행사나 고위급 지휘관・장교들에게만은 '들리지 않던 소리'였던 비공식 군가는 이제 해병대원 모두에게 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권위와 폭력을 통한 무조건적 복종의 '군대식' 병영문화가, 이제는 개인의 의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Carnival of Marines Corps' Unofficial Military Song

Kim, Sae-Ho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unique subculture of unofficial military songs sung and spread among marine corps through Mikhail Bakhtin's carnival theory. Marine corps dreamt of escaping from the authority of public culture and rules in their suppressed reality, establishing the opportunity of salvation and creation through the carnival of unofficial military songs in chrontope: the intersection of time and space in which they could hide escape from the ruling class. They satirized and mocked the reality with violent and obscene lyrics in harmony where the stage and audience are not separated. However, the repulsion against the old-school lyrics that portray the violence, insults, and the corrupt practices in barracks done in the past, and the call for introspection due to malignant accidents in the military brought forward improvement in barracks life and simultaneously decreased the amount of unofficial military songs seen in the barracks. Once used as a slogan to unite the marine corps' mentality and comradeship but 'unheard' by commanders and officers, the unofficial military songs are now 'unheard' to all of the marine corps. This hints that the culture of respecting one another's opinion and diversity has settled in the military from the "military-like" unconditional obedience to authority and violence.

[논문투고일: 2020. 02. 28]
[논문심사일: 2020. 03. 19]
[게재확정일: 2020. 03. 27]